

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시황 코멘트 | 2024. 10. 7

주간 마켓 스펙트럼: 방산, 조선 VS 철강, 반도체

투자전략팀 | LS.Research@ls-sec.co.kr 황산해 | sh.hwang@ls-sec.co.kr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불확실성으로 코스피 주간 -3%가량 하락한 가운데 섹터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 출현. 방산, 조선, 헬스케어가 수주 및 개별 호재로 강세. 반면 주요 수출 섹터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은 부진

상승 모멘텀, 방산, 중동 확전 불안감의 수혜

이스라엘-레바논 전면전부터 이란과의 직접적 충돌 격화 등 현재진행형인 중동 전쟁에 방산 업종은 견조한 상승세 지속. 변경 상장 후 거래 재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6.5%, WTD)**를 비롯 **LIG넥스원(+5.9%), 현대로템(+5.6%)** 등 상승. 금주 개최된 KADEX 2024는 중견, 중소기업으로의 방산 모멘텀 확산에 기여. K2전차 국산 파워팩 적용 기대감의 **SNT다이내믹스(+0.6%)**, 전장 네트워크 **휴니드(+4.0%)**, 군용 무전기 **빅텍(+1.5%)** 등 참가기업들 주가 전반 견조한 모습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 석유시설 타격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 그러나 NYT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아직 이란 주요시설 타격 카드를 포기하지 않음. 고려해야 할 점은 이번 확전 양상으로 그간 정치 입지가 불안했던 네타냐후 총리 지지도가 상승한 점. 더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폭격으로 같은 시아파 헤즈볼라는 수니파 하마스보다 종교적, 입지적으로 예민한 사인임을 증명했기에 중동 갈등 해소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방산 업종 역시 긍정적 센티 지속될 가능성 높후

비철/목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지속

조일알미늄(+10.3%), 피제이메탈(+16.2%) 등은 미국의 중국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 판정 소식에 강세. 한국산은 0~3%대 덤핑 마진으로 대체로 낮은 마진 산정된 반면 중국은 4.5~376.8%가량. **고려아연(+9.1%)**-영풍 경영권 분쟁은 MBK-영풍 연합이 공개매수가 83만원으로 상향하며 종료일인 14일까지 지속

조선, 자재가격 상승 우려로 출렁, 수주 모멘텀은 지속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로 철광석과 구리 가격 급등. 선박용 후판가격 전가 우려로 주 초반 부진한 주가 흐름 보였으나 **한화오션(+2.5%), HD한국조선해양(+0.7%)** 등이 신규 수주 소식 알리며 반등 성공. **HD현대마린엔진(+7.4%), 한화엔진(+7.0%)**은 중국향 선박엔진 수주 계약으로 중국 조선기업들의 컨테이너 선 수주 호황의 간접 수혜 기대감 부각

W26 섹터 별 주간 수익률 등락

	1W	2W	3W
코스피	-3.0	2.2	0.7
코스닥	-0.7	3.5	2.1
비철,목재등	4.9	0.5	5.2
건강관리	1.2	-3.9	5.6
조선	0.7	-5.6	5.2
통신서비스	0.5	-2.1	-1.1
소프트웨어	-0.4	3.7	-0.5
증권	-0.6	0.6	0.8
상사,자본재	-0.7	-0.3	1.1
기계	-0.9	1.5	4.9
에너지	-1.3	2.3	1.0
은행	-1.7	0.1	0.9
미디어,교육	-1.8	7.2	-1.1
건설,건축관련	-2.1	-1.7	0.3
호텔,레저서비스	-2.5	1.6	-1.1
유틸리티	-2.6	-4.5	0.0
보험	-3.2	-3.0	1.8
화학	-3.2	12.0	0.4
IT가전	-3.4	6.0	1.5
IT하드웨어	-3.5	4.2	0.6
소매(유통)	-3.7	1.5	-0.8
필수소비재	-3.8	2.2	-1.1
화장품,의류,완구	-3.8	5.9	-0.5
철강	-4.2	4.1	1.3
디스플레이	-4.6	3.4	2.3
자동차	-4.9	0.6	3.7
반도체	-5.3	5.9	-2.3
운송	-7.3	6.4	2.5

그림1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 GPR Index, 중동 전쟁 확산에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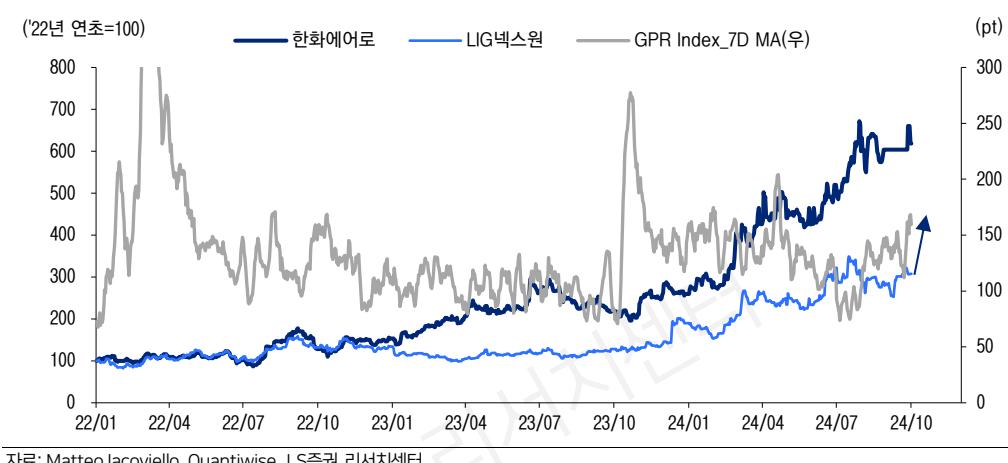


그림2 중국 부양책으로 조선 자재 비용 압박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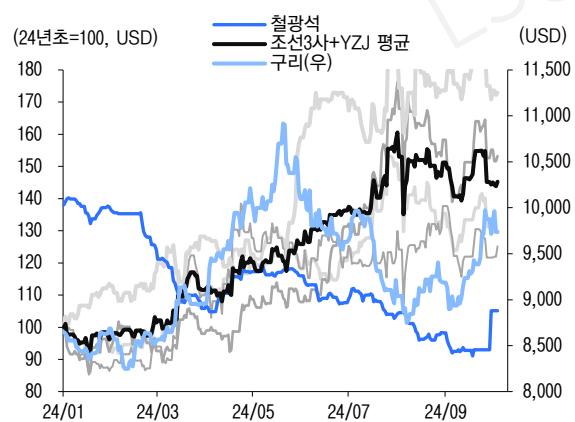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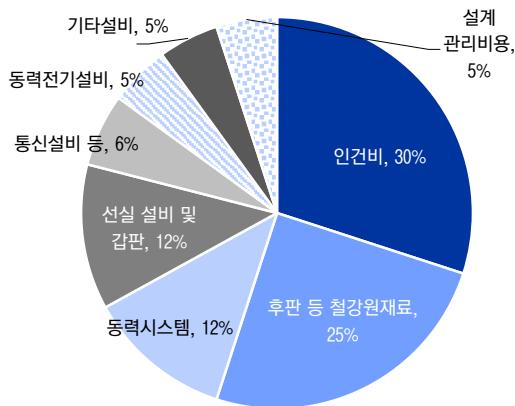


그림3 선박 제조 원가 구성



철강, 증시를 이끄는 조선기업들과의 후판 가격 협상 전쟁

지난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기대감으로 급등한 상승분 일부 회복. POSCO홀딩스(-4.4%), 현대제철(-3.8%), TCC스틸(-5.5%), 포스코엠텍(-4.1%), 동국산업(-4.3%) 등 하락. 금주 산업통산자원부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하며 철강 산업의 이목이 집중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인 후판은 전체 생산의 80%가 조선산업에 사용되며 1년에 두 번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가격 협상이 이뤄짐. 다만 올 상반기 협상이 7월에 마무리될 만큼 24년 협상은 어느때보다 난항을 겪는 중. 24년 조선업의 수주 호황은 후판 수요 증가로 연결, 철강업계와의 원-원의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 그러나 자국 경기부진으로 수요처를 잃은 중국산 저가 후판이 21년 이후 국내에 대거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자연스레 중국산 철강재 비중을 늘리고 있음. 철강업계는 주 수요 산업(건설, 자동차, 조선)이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조선기업들과의 가격협상이 중요한 상황. 이번 반덤핑 조사의 판결과 부양책 발표에 따른 중국 내 철강 수요 증가세 추이는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철강업종 주가와 함께 주목할 필요

그림4 중국의 저가 후판 밀어내기에 조선-철강 디커플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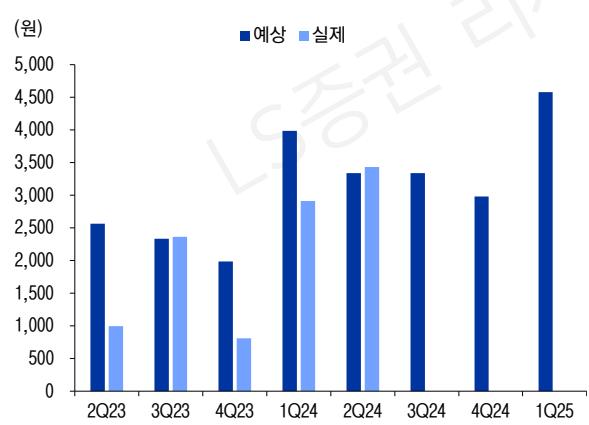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IT가전, 동부항만 파업 중단으로 한숨 돌린 가전

다가오는 미국 쇼핑시즌을 앞두고 국내 가전 업계에 하방압력을 부여했던 미국 동부항만 파업이 10/4일 중단되며 LG전자(-0.6%)가 반등에 성공. LG전자는 최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가전, 냉각솔루션 사업 부각되며 주가 회복세에 돌입했으나 이번 파업의 대표적 피해 기업으로 꼽히며 3거래일 연속 하락. Import Genius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 동부, 걸프 항만 물류 이용순위에서 퍼스트솔라, GM, 월마트 다음 LG전자가 위치. 삼성도 7위를 기록. 8일 예정된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발표도 주요 이벤트로 생활가전과 TV 판매의 회복세를 지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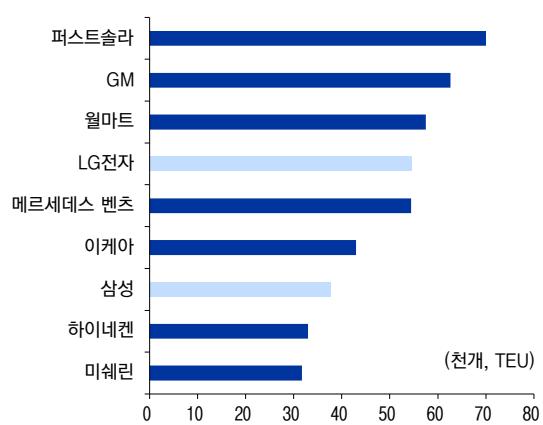
2차전지 업종은 지난주 강세를 이끌었던 테슬라의 대형 이벤트(3분기 인도량발표, 로보택시) 기대감이 소멸되며 매물 출회. LG에너지솔루션(-2.6%), 삼성SDI(-5.9%), 에코프로비엠(-3.7%), 엔켐(-3.2%) 등 하락.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 46만2890대로 컨센(46.2만 ~46.3만)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나 투자자들의 위스퍼 넘버(47만)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더해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사임한 나게쉬 살디는 테슬라의 데이터센터 개발을 주도해 오며 AI와 자율주행 사업의 핵심인물 중 한명으로 우려 가중. 와중 긍정적이었던 소식은 GM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3분기 전기차 판매량 분기 사상 최고치 달성을 성공한 점

그림5 LG 전자 EPS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동부, 걸프 항만 물류 이용 순위('23/9~'24/9)



자료: Import Genius, LS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3분기 실적전망 하향과 함께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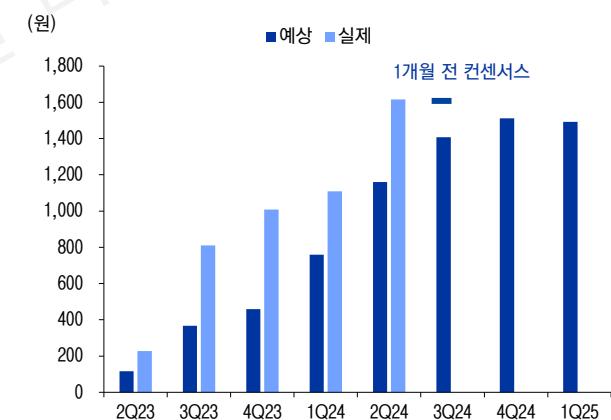
10월 8일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5.6%)를 비롯, SK하이닉스(-5.3%), 한미반도체(-5.0%) 등 반도체 업종은 지난주 깜짝 반등 이후 재차 하락세 진입.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적 컨센서스 하향은 수출성장 모멘텀 둔화와 동반. 지속적으로 주가에 하방압력 부여. 일련의 우려 속, 상반기 상승세를 주도했던 외인 유입으로 급등했던 외인 비중은 어느새 연초 수준으로 회귀. 이어 블룸버그는 4일 삼성전자의 대규모 글로벌 구조조정을 보도. 인텔과 함께 AI 경쟁으로 끼거운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대조적 분위기를 조성. 만약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이기에 낙폭 과대 인식 속 단기적 반등 정도가 합리적인 상황.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AI 산업의 본격적 편승

그림7 수출 둔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선 AI 편승이 필요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삼성전자 EPS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 증권 마켓&테마 캘린더

2024년 10월 6일~10월 12일

10월 06일	10월 07일	10월 08일	10월 0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대 국회 국정 감사 (10/7~25)	삼성전자, LG전자 3분기 잠정실적	한국 휴장	9월 FOMC 의사록 (03:00)	10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서울 핀테크 위크 (10/7~10)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 시추 안정성 검토 토론	GM 투자자의 날 (01:45)	대만증시 휴장	미국 9월 PPI (21:30)		
	기아 노사 2차 잠정 합의안 투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	글스비 총재 연설 (22:45)		
	카시카리 총재 연설 (02:50)		미국 9월 CPI (21:30)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은행		
	미국 9월 NFIB 소기업지수(19:00)		델타항공 3Q24 실적발표	3Q24 실적발표		
중국 증시 휴장 (국경절)			AMD Advancing AI 2024 행사			
		2024 미국 디트로이트 배터리 전시회			LS Securities Research 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